

'컴백' 캔 "재도약 해야겠다는 의지"

내달 19일 신곡 발표 "뉴트로 유행에 결심"

'쾌남' 터프가이 떠올리게 하는 록 댄스 장르

11월 19일 신곡을 발표하는 남성 듀오 캔이 "재도약하고 싶다"고 말했다.

캔은 28일 오후 1시 서울 세빛섬에서 신곡 '쾌남' 발매 기념 인터뷰를 진행했다. 배기성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은 1년만이다. 이번처럼 활발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오랜만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뮤직비디오부터 곡 선택에 있어서 신경도 많이 썼다"며 "우리가 데뷔한지 20년이 넘었고 캔으로 두 사람이 열심히 해서 잘 살았는데 다시 한번 재도약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또 "요즘 가요계는 아이돌 위주로 돌아가고 뉴트로가 오면서 90년대 음악이 오는 것 같다"며 "요즘 이상보면 우리 학창시절 때 유행한 옷들이 많았다. 그래서 우리 역시 제대로 만들어보자는 의지를 보였다."

이종원은 "예전에는 우리 의사로 진행을 했다면 이제는 회사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며 "그동안 우리 의사를 냈을 때 많이 망했다"며 웃기도 했다.

'쾌남'을 발표하는 11월19일은 배기성의 결혼 2주년 날이기도. 그가 아내를 위해 준비한 사랑의 헌정송이라는 점에서도 의미있다.

'쾌남'은 수많은 터프가이들을 떠올리게 하는 록 댄스 장르의 노래다. 이 곡은 수많은 인기 뮤지션들의 히트곡을 탄생시켰던 최수정



작곡가가 작업해 완성도를 높였다. UN, 컨츄리코코, 인디고 등 듀엣 뮤지션과 작업 할 때마다 메가 히트를 기록했던 최수정 작곡가는 캔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

'쾌남'은 강렬한 기타 연주, 캔의 시그니처 사운드와 같은 배기성의 주입새가 도입부부터 귀를

사로잡는다. 여기에 곡이 진행되면서 펼쳐지는 변화무쌍한 편곡, 흥겨운 멜로디, 두 사람의 음색이 한데 어우러져 '쾌남'이라는 제목과 같은 속도감을 안겨준다. 또한 클라이막스로 치닫는 캔의 사우팅은 답답한 속을 뽐내는 호쾌함을 선사할 예정이다.



영화 '선물' 허진호·신하균·김준면 뭉쳤다

청춘 열정 담은 코미디

배우 신하균과 김준면(엑소 수호), 김슬기, 유수빈이 뭉쳐 청춘의 열정을 선사한다.

28일 오전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영화 '선물' (감독 허진호) 특별 상영회 및 간담회가 열려 허진호 감독, 배우 신하균, 김준면, 김슬기, 유수빈이 참석했다.

'선물'은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패기 만렙 청춘들 앞에 과거에서 온 수상한 남자가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유쾌 발랄 코미디로 영화 '닥터옹주' '봄날은 간다'의 허진호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영화는 실제 팀 이그니스의 이야기를 다뤘다. 팀 이그니스는 앞서 기존 영화상 카메라보다 조작이 쉽고 저렴한 소방용 영화상 카메라 개발에 성공한 바 있다.

신하균은 과거에서 온 수상한 남자 상구 역을 맡았다. 1969년 자신의 공장 옥상에서 사진을 찍다가 영문도 모른 채 2019년으로 타임슬립을 하게 된 상구의 모습을 표현한다. 이번 작품으로 허진호 감독과 처음 호흡을 한 신하균은 "좋은 취지의 작품이고 시나리오가 재밌었다. 감독님과 알고 지내지는 20년이 됐는데 처음 작품을 하게 됐다. 그동안 왜 연이 안 닿았을까"라며 "그렇게 이 친구들과 너무 재밌게 찍었고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김준면은 패기 만렙 청년 하늘로 분한다. 하늘은 자신의 작업실에 갑자기 나타난 수상한 아저씨 상구와 동거동락하며 티격태격 브로맨스 케미를

선사하며, 동시에 소방용 영화상 카메라 개발을 위해 열정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김준면은 "너무 재밌게 잘 봤고 뒤에는 감동, 뭔가 마음이 먹먹해지는 순간이 있었다"며 "함께 해주신 배우님들, 선배님들 고생 많았고 감독님이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단 걸 느꼈다"고 했다. 또한 "청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그런 청춘들에 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스토리에 많이 끌렸다. 그리고 허진호 감독님이라는 이야기에 저도 존경하고, 부모님도 많이 좋아하시고 축하한다고 하시더라. 그리고 신하균 선배님은 제가 많이 좋아한다. 진짜로 정말 많이 좋아해서 한다고 했을 때 너무 좋아서 함께하고 싶었다. 그리고 함께한 슬기, 수빈 배우님들도 너무 좋은 배우라 결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슬기는 강단 있는 성격으로 팀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보라역을 맡았다. 그는 "저도 또래들 이야기와 공감할 수 있었고 뭔가 열정적인 인물이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허진호 감독님과 함께 할 수 있던 생각에 영광스러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생각에 하게 됐다. 너무 좋은 호흡으로 촬영했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유수빈은 소방관으로 소방용 영화상 카메라를 제안한 영복으로 분했다. 유수빈은 "선배들과 한다는 게 영광스러운 거라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신하균 선배님도 저도 정말 좋아한다. 짧지만 정말 선배님과 재밌게 촬영했다"고 밝혔다.

28일 유튜브브 포털 등 온라인과 IPTV에서 공개.

진태현♥박시은 부부, 대학생 딸 입양

"어려움도 함께 극복할 것"

배우 진태현 박시은 부부가 대학생 딸을 입양했다.

28일 진태현 박시은은 SNS에 장문의 글을 통해 입양 소식을 전했다.

두 사람은 "2015년 8월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신혼여행으로 찾아간 제주도 천사의집 보육원에서 처음 만난 아이 우리 OO이. 아직도 기억나는 건 줄을 길게 늘어난 코흘러는 막내들에게 전복을 손가락으로 파주던 모습.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나 지금까지 함께 이모 삼촌으로 지내 왔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방학 때마다 제주도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고 대학 입시 때도 함께 학교 시험을 보러 다녔고 저희 집에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 OO이 가족이었습시다"라며 "이제 조키는 편입, 졸업, 취직, 결혼 등 혼자서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고 저희 부부는 이모 삼촌이 아닌 진짜 엄마 아빠가 되어주기로 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다. 그러면서 "입양은 오래 전부터 우리 부부가 노력하고 생각 해왔던 것이고 소외된 아이들을 도와야한다고 저희가 믿는 하나의 길이 배워왔던 거라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라며 "앞으로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마저 다 함께 경험하는 것이 가족이니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부부가 서로 사랑하니 두려움도 어려움도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시은 진태현 부부는 이제 대한민국 배우이자 대학생 첫째딸이 있는 대한민국 부모입니다. 열심히 살게요. 감사합니다"라고 글을 끝맺었다.

SBS '미우새' PD "김건모 母 등장...모벤저스 모두 감격 포용"

가수 김건모의 어머니 이선미 여사가 '미운 우리 새끼'에 8개월 만에 출연한다.

이선미 여사는 오는 11월3일 방송될 SBS '미운 우리 새끼'에 스페셜MC로 출연한다. 그동안 '모벤저스' (모벤저스의 중심)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녀의 빈자리는 컸다. 약 8개월만에 스페셜MC가 되어 '미우새' 스튜디오를 방문한 이선미 여사는 건강한 모습과 함께 변함없는 입담을 자랑했다는 전언이다.

'미우새'를 연출하는 박종원PD는 28일 뉴스1과 통화에서 "녹화장 분위기는 너무 좋았다"면서 "다른 모벤저스 어머니들도 이선미 여사의 방문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무척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다들 그동안 이선미 여사를 보고 싶어 했는데, 이번 등장에 모두 일어나 서로를 안아주고 반가운 인사를 나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모벤저스 고정 출연자로의 복귀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스페셜MC로 한 회분에 등장하고, 앞으로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 정해진 것은 없다"고 조심



스럽게 답했다. 한편 이날 이선미 여사는 특유의 카리스마+돌직구 코멘트로 '미우새'의 분위기를 끌어 올린다. 또 그동안 힘든 일을 겪으면서 '미우새'에 출연하지 못했던 이야기와 솔직한 심경을 가감 없이 고백할 예정이다. 오는 11월3일 공개.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가진

광주 상설 국악 한마당

일시 2019. 3월 ~ (매주 토요일 17:00)

장소 광주 공연마루(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3)

내용 시민과 함께 어울려 즐기는 전통, 퓨전 등 다양한 국악공연

문의 광주문화예술회관 (062-613-8351, 062-613-3181)

※ 관람료 무료

광주광역시